

프랑스어 연상 조응에 대하여*

김 경 석
(충북대학교)
김 서 영
(서울대학교)

Kim, Kyungsuk and Kim, Seoyoung. (2014). On French Associative Anaphor. *Language Research*, 50.3, 577-600.

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to the properties and aspects of French associative anaphor (AA). To this end, an analysis of collected data is made with the comparison of anaphor which has a general meaning and some previous studies are also examined in light of AA constraints. To explain these constraints, we need some new terms or concepts as 'associating (antecedent)-associated (anaphor)', the distinction between 'Mondrian's type and Picasso's one of inference', a kind of 'Effect Doppler' and, formal and semantic features.

A few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s proved that the concepts of 'stereotypicality', 'alienation', 'non-transitivity' and 'ontological congruence' are very effective in characterizing AA in use by applying them to all collected French data. Second, it's found that some acceptable data, which don't meet four constraints of relation between two NPs, need to be backup with the introduction of 'salience' constraint, but we can observe some data not to be filtered by the last one. Third, we newly classify AA phenomena by means of two formal features: [\pm anaphoric] and [\pm associative], and two semantic ones: [\pm stereotypical] and [\pm meronymic]. Finally, we confirm that AA is one of the most useful mental device which is not only productive but also highly creative in language.

Keywords: anaphore associative, association, type d'inférence, associant/associé, Effet Doppler, traits formels et sémantiques

1. 서 론

인간의 언어에는 어떤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지시를 나타내는 다양한 대체 표현들이 존재한다.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논문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수정하였고, 아직도 남아 있을 문제는 순전히 연구자의 몫이다.

- (1) a. *Alfred aime son père*¹⁾
 b. Je lui donne un cadeau, à ton frère

(1a)에 나타난 소유사 ‘son’은 그것이 한정하는 ‘père’와 구조적 혹은 통사적으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주어 ‘Alfred’와 의미적으로 연관된다. (1b)의 ‘lui’도 ‘à ton frère’를 대체함으로써,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출현하는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이처럼 해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문맥 속의 다른 요소에 의존하고 의미적으로 공지시를 이루는 범주를 문법은 대용사(anaphore)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지만, 관련된 명사구들이 공지시를 이루지 않고, ‘전체(tout)’와 ‘부분(partie)’이라는 의미적 상투성(stéréotypie)에 의거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 (2) a. J’ai acheté *un stylo*, mais j’ai déjà tordu la plume (Kleiber et al. 1994:7)
 b.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Loc. cit.)

여기에서 ‘상투성’이란 ‘상반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2)의 ‘la plume’는 선행한 ‘un stylo’와 ‘l’église’는 ‘un village’와 해석상 연관되어, ‘펜의 깃털’과 ‘마을에 있는 교회’로 이해된다. 이때, 정관사가 매개하는 ‘연상(association)’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 개념은 ‘한 요소가 다른 잠재적 요소와 관계를 맺게 하는 정신 작용’으로, 연상이 대용에 개입하면 ‘anaphore par association ou anaphore associative’라는 현상을 도출한다. 그런데 ‘anaphore’는 ‘대용’ 혹은 ‘조용’으로 혼용되고 있다. 『새 우리 말 큰 사전(1980)』은, 대용(代用)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반면에 조용(照應)을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이에 의거하여 본 논문은 용어를 구분하여, 명사나 대명사가 어떤 표현을 대체하면 대용이고 두 명사구가 추론(inférence)이라는 연상 과정을 거쳐 관계를 맺으면 조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의거하는 연상을 매개로 하는 연상 조용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추론적 연상(association inférentielle)’ 혹은 ‘추론을 통한 연상(association par inférence)’이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다양한 대용 현상 중에 추론/연상이 관여하는 현상을 연상 조용이라 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연상자(associant)’와 ‘조용

1) 대용사 혹은 조용사는 밑줄이 쳐진 굵은 글씨체로, 선행사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사(associé)’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장에서는 이 정신 작용에 의거하여 서로 독립적인 두 명사구가 관계를 맺는 현상에 대해 기본 요건 및 형식 제약, 관계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어휘 상투성 논증’과 ‘담화 문맥 연상 가설’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접근한다. 4장에서는 논의 과정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상 조음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형식 자질과 의미 자질을 이용한 가설을 제안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리하고 요약하는 한편, 남은 과제를 언급함으로써 향후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

2. 추론을 통한 연상

발화자가 언어 기호(signe linguistique)들을 형식 규칙인 ‘하위 범주화(sous-catégorisation) 틀’과 의미 조건인 ‘선택 제약(contrainte sélectionnelle)’에 따라 발화를 산출하면, 수신자는 동일한 과정을 통해 추론하며 발화의 의미를 해석한다. 여기에서 추론이란 주어진 정보나 전제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정신 작용이다. Saussure (1983:28)의 관점에서는, 발화자가 언어 기호에 필요한 개념(concept)과 청각 영상(image mentale ou accoustique)을 결합하고, 이 기호들을 다시 문법 규칙에 따라 조합하여 발음 기관을 통해 조음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자의적으로 시작되어 관습적 혹은 의무적으로 쓰이는 언어 기호로 실현되는 ‘언어 외적 현실의 나무’는 보통의 경우 현실 세계의 나무라는 의미를 갖지만, 몬드리안은 다음의 <그림 1 (e)>로 추상화하여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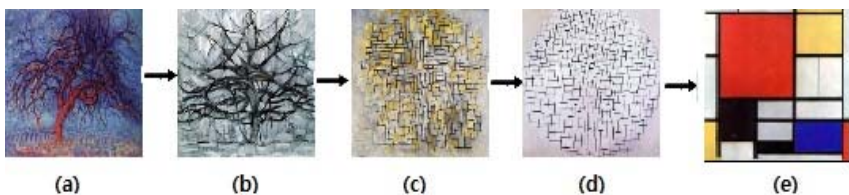


그림 1. 몬드리안의 추론 혹은 추상화 과정.

그런데 이 그림을 본 보통 수준의 수신자는 ‘나무’와의 관련성을 해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화가의 정신에서 <그림 1>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추론이나 추상, 단순화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몬드리안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의 추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작가가 관찰한 ‘언어 외적 현실 세계의

나무’를 (a)로 설정하고 실현된 작품을 (e)라고 가정하면, (e)는 전 단계인 (b-d)가 생략되면 해석되지 않는다. 이를 ‘몬드리안 방식의 추론’이라 하면, 이 과정에서는 매개 단계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논리적으로 연상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피카소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신의 움직임을 예술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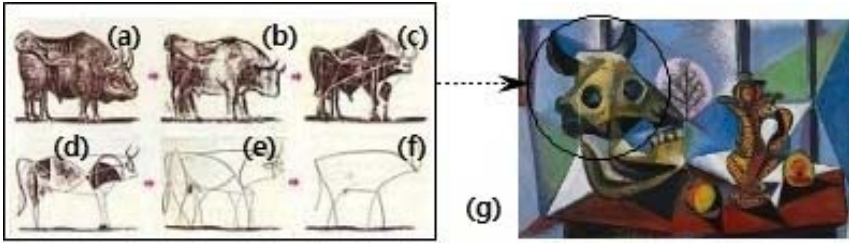


그림 2. 피카소의 추론 혹은 추상화 과정.

몬드리안 방식과 달리, 실체 (a)가 작품 (g)로 추상화 될 때, 연결 고리(pontage)인 중간 과정 (b-f)이 없어도 해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를 ‘피카소 방식의 추론’이라고 가정하면 이 과정에서는 매개 단계가 주어지지 않아도 연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때 전이(transitivité)라는 개념이 개입한다. Kleiber (2001:203)의 정의를 요약하면, 전이란 ‘어떤 명사구 (C)가 앞선 문맥에 존재해야 의존적 해석이 가능한 명사구 (B)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전 문맥에 있는 명사구 (A)와 직접 관련되는 현상’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몬드리안의 방식에서는 (a)와 (e)가 직접 연관되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지만, 피카소의 경우에는 (a)와 (g)사이에 매개체가 생략되어도 전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²⁾ 이처럼 추론이란 어떤 원리나 전체적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참’과 ‘거짓’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신에서 작동하는 사유 작용이다.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발화자가 의도한 의미’와 ‘어휘들이 고유하게 지니는 의미의 합집합’ 사이의 괴리나 이탈까지도 수신자가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추론은 인식 기제이고 이를 작동시켜 발화자는 발화를 구성하고, 수신자는 그 발화를 어휘나 다양한 지식의 관계망을 동원하여 추론하고 해석한다.

Saussure (1983:173-174)에 의하면, 공통 분모를 갖는 어휘들은 연상에 의해 연합된다. 어떤 경우에는 형태, 즉 어간(racine)/어근(radical)에 따라 ‘enseignement, enseigner, enseignons, etc’로, 혹은 어미(suffixe)에 따라 ‘enseignement, armement, changement, etc’로 연합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미를 중심으로, ‘enseignement, instruction, apprentissage, éducation, etc’이 하나의 계열

2) 이 두 방식의 추론/연상과 ‘전이’의 관련성은 3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체(paradigme)를 구성한다. 이처럼, 형태와 의미가 모두 혹은 각각 유사한 언어 요소들이 관계에 따라 계열체를 이루게 하는 정신 작용이 바로 연상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연상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정신 작용이며, 대상에 대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유사성(similarité)과 인접성(proximité)을 분모로, 사물의 심상을 다른 사물에 투영하여 새로운 심상을 창출하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연상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동일한 언어공동체의 어휘부에 담긴 방대한 자료에 의거하여 지시물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인지적 언어 능력이다.

이처럼 지시적으로 독립된 두 명사구가, 공지시를 이루지 않으면서, ‘추론을 통한 연상 작용’에 의해 서로 연관된 해석을 창출하는 특유의 현상은 언어보편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인간의 내적 장치가 작동하여 두 명사구가 관계를 맺는 현상을 ‘연상 조응(AA)’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상 조응에 필수적인 연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응사는 조응된 요소라는 의미의 ‘associé’, 선행사는 조응을 연상시키는 요소라는 뜻을 가진 ‘연상자(associant)’³⁾로 대체한다.

3. 연상 조응에 대한 논의

Kleiber (2001:8)에 의하면, 넓은 의미에서 AA는, 조응사의 지시물이 앞선 문맥에 있는 연상자의 정보에 의해 확인된다는 점에서 대응적이고, 지시물이 앞선 문맥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지시가 아니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간접 조응으로 대명사나 지시사와 같은 모든 간접 조응의 범주까지도 포함한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AA는, 조응사의 유형이나 간접 관계의 속성이 현상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정관사를 가진 명사구만을 용인한다.

3.1. 조응사와 연상자에 대한 조건

먼저 조응사와 관련된 조건을 살펴보자. 전형적인 AA의 조응사는 반드시 한정 명사구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가 표준적 혹은 전형적 유형으로 인정된다.

3) Kleiber et al. (1994:17)에서 재인용하면, Corbin과 Kempson, Kleiber는 선행사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으나 Reichler-Béguelin은 ‘지지 표현(expression d'appui)’을, Hawkins와 Cornish는 ‘촉발자(trigger/déclencheur)’를, Charolles은 ‘근거(sourc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현상의 결과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론/연상 과정을 중시하는 본 논문의 취지에 맞지 않아 새 용어를 사용한다.

- (3) a. Nous arrivâmes dans *le / un village*. L'église / * Elle / * Cette 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Kleiber 2001:36)
 b. Nous arrivâmes dans *le / ?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 Les églises étaient situées sur une hauteur (Loc. cit.)

예문 (3a)에서 알 수 있듯이, 조응사에 정관사가 부가되지 않으면, 비수용/비문법적이거나 AA를 이루지 못한다. 정관사가 ‘한정적 유일성’을 표지하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 제약자이기 때문에 문맥 혹은 상황에 있는 다른 요소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l'église’가 직시적(déictique) 혹은 총칭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려면 이전 담화 문맥에 출현한 ‘un village’에 의미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3b)에서처럼 형용사가 부가되거나 복수일 경우, ‘특정한 교회’라는 자격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특정한 마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실체로 바뀌면서, ‘un village’가 아니라 ‘le village’를 요구한다. 그리스도교가 유럽인의 삶에 중심이던 시절부터 마을에는 대체로 하나의 교회가 마을의 광장 주변이나 언덕 위에 위치했다. 이러한 속성이 상투성 혹은 ‘개략적 전형성(typicalité vague)’⁴⁾이다. 이 개념에 의거하면, 어떤(un) 마을이나 혹은 그(le) 마을에는 대체로 하나쯤 있는 교회가 언덕 위에 위치한다는 상투성에 입각한 해석(3a)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교회가 로마테스크풍이거나 복수의 교회라면, ‘일반적인 마을’이 요구하는 의미틀이 지니는 상투성을 벗어난다. 따라서 ‘그 마을에만 있는 특정한 교회(들)’라는 의미가 산출되어 부정관사를 지닌 연상자와 충돌한다. 그런데 조응사가 부정관사를 갖는 특수한 예들이 관찰된다.

- (4) a.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e roue était pleine de boue (Kleiber 2001:16)
 b.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Les roues étaient pleines de boue (Loc. cit.)
 c.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e des roues était pleine de boue (Loc. cit.)

(4a)의 부정관사는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일반적 용법이 아니라, ‘특정한 자동차에 달린 네 개의 바퀴 중 하나’라는 추론 과정(4b-c)을 거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한

4) Dubois & Lavigne-Tombs (1994:283). 전형성이 ‘엄정하지(rigoureuse)’ 않고 ‘개략적’인 이유는, 서양의 마을에는 교회가 ‘반드시’가 아니라 ‘의례’ 하나쯤 존재하고, 역으로 교회가 없다고 해서 마을의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엄정한 전형성’을 적용하면 영역을 과도하게 축소시켜 AA라는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기 어렵게 된다.

정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Kleiber (2001:21-22)는 부정관사를 가진 조응사는 복수인 'les N'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수인 'le N'만이 분포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한다.

정관사만을 요구하는 조응사와 달리, 연상자는 형태상으로 부정관사 및 정관사, 지시사, 소유사 등이 부가된 명사구를 모두 용인한다.

- (5) a. Il est entré dans *un village*. L'église est fermée
- b. Sophie entra dans *la maison*. La porte était ouverte
- c. Il a lu *ce roman*, parce qu'il connaît l'auteur
- d. Paul nous a décrit *sa voiture*. La hauteur est inhabituelle

하지만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연상자에는 부정관사가, 조응사에는 정관사가 부가된 명사구이다. Choi-Jonin (1994:256)는 연상자의 부정관사가 비한정적 표지를 가지면 조응사와 연상자는 담화 문맥이 아니라 어휘소 사이의 상투적 관계에 의해서 해석되는 전형적 AA로 간주된다. Kleiber (2001:171)도 대체로 '전형적 AA'는 부정관사를 가진 '비한정적 연상자'와, '비전형적 AA'는 정관사가 부가된 '한정적 연상자'와 보다 쉽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예측한다.

다양한 한정사가 부가된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와 같은 술어나 다양한 상황 보어도 연상자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6) a. Pierre se *coupa* du pain, puis il rangea le couteau (Kleiber et al. 1994:7)
- b. *En France*, le président voyage beaucoup (Ibid. 22)
- b'. *En 1930*, les voitures roulaient moins vite (Loc. cit)
- c. *Sophie dormait*, le journal était tombé au pied du lit (Loc. cit)
- d. *Atterrir* sur la Place rouge ! Certainement le jeune pilote est fou (Loc. cit)
- e. Je suis passé de la salle de bal dans la cuisine. Le plafond était très haut (Kleiber 2001:43)

술어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6a)나, 시간 및 공간을 나타내는 상황보어(6b-b'), 절(6c), 부정법(6d) 등도 연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6e)처럼, 잠재적 연상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 'la salle de bal'과 'la cuisine' - 담화 문맥의 의미 관계에 따라 연상자가 결정된다.⁵⁾

3.2. AA에 대한 제약

‘새로운 지시물 및 이전 문맥에 위치한 연상자, 한정성을 가진 조용사’라는 기본적인 형식 요건이 주어지면, 다음 단계로 추론을 통한 연상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제약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 다양한 제약 중,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의어 조건(Condition de méronyme)은 ‘전체에 대한 부분(partie de)’이라는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7) 전체에 대한 부분(Miéville 1999:331)

P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Q에 포함되는 지시물인 R이 존재하지($Q \supset R \supset P$) 않으면, P는 전체 Q의 부분이다($Q \supset P$).

Q가 ‘포함 요소(englobant)’이고 P가 ‘피포함 요소(englobé)’이면, 연상자 Q와 조용사 P는 ‘전체-부분’이라는 관계를 맺는다. 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의어 조건’이 주어진다.

(8) 분의어 조건(Kleiber 2001:269)

X와 Y라는 명사구가 동일한 분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때, 그리고 «Y가 X를 갖는다» 혹은 «X가 Y의 부분이다»라는 형식 문장 (phrase de la forme)이 가능할 경우에만(si et seulement si), X가 Y의 분의어이다.

이 조건에 의하면, ‘village-église’나 ‘stylo-plume’, ‘voiture-roue (s)’, ‘maison-porte’는 동일한 분류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로, ‘마을은 교회를, 펜은 깃털을, 자동차는 바퀴를, 집은 문을 갖는다’ 혹은 ‘뒤 요소들이 앞 요소들의 부분이다’라는 형식 문장을 용인하므로, 분의어 관계를 이룬다.

- 5) 연상자를 결정하는 특별한 조건이나 원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명사구들이 유사한 자질을 지녀 잠재적 연상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등가의 조건에서는, ‘연결고리(pontage)’가 길면 그 해석이 배제된다’는 Clark (1977:415)의 예측도 준거로 작동하지 않는다.

i) Je suis passé dans la cuisine en venant de la salle de bal. Le plafond était ‘très’ haut

ii) Je suis passé de la salle de bal dans la cuisine. Le plafond était ‘trop’ haut
Kleiber (2001:44)에 의하면, (6c)의 조용사는 ‘la cuisine’를 연상자로 택한다. 근접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문 (i)에서처럼 ‘le plafond’이, 가까이 있는 ‘la salle de bal’을 제치고, 멀리 떨어진 ‘la cuisine’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문 (i)의 부사 ‘très’를 ‘trop’로 바꾼 예문 (ii)에서는, 두 번째 문장이 앞 문장에 대한 이유가 되어 연상자는 ‘la salle de bal’로 바뀐다. 이처럼 잠재적 연상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해석은, 근접성이 아닌, 담화를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 집합에 따라 달라진다.

AA의 방향성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연상자가 앞서고 ‘부분’인 조응사가 뒤따르는 것이 전형적 순서이다. 그러나 ‘부분’이 ‘전체’보다 선행하면서 조응이 ‘부분에서 전체’로 이행되는 듯한 현상도 가능해 보인다.

- (9) a. *Une voiture a dérapé. Les pneus* étaient lisses (Kleiber 2001:191)
 b. *Les pneus* étaient lisses. *La voiture* a dérapé⁶⁾ (Loc. cit)
 b'. ? *Les pneus* étaient lisses. *La voiture* a dérapé
 c. ? *Les pneus* étaient lisses. *Une voiture* a dérapé (Loc. cit)

(9a)는 비한정성을 보이는 연상자와 ‘부분’을 이루는 한정적 조응사가 결합한 ‘전형적 AA’에 해당한다. 반면에 (9b-b')처럼 ‘부분’이 선행하고 뒤따르는 전체가 정관사를 지니면 적어도 ‘비전형적 AA’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부분인 ‘les pneus’가 조응사인가(9b), 혹은 연상자인가(9b')라는 것이다. 이 발화들에 대한 해석이 모두 수용될 수 있으면, ‘전체에서 부분’이나 ‘부분에서 전체’라는 방향성은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9a)를 ‘부분(les pneus)에서 전체(une voiture)’라는 역방향을 가진 AA로 해석하려면, 조응사인 ‘une voiture’의 부정관사가 문제를 야기한다. 부정관사가 부가된 명사구가 출현함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예문 (4)와 같이 ‘un des N’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9a)는 그 경우가 아니므로 앞선 명사구가 연상자라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가 바뀐 (9c)에서 ‘부분’이 연상자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도 ‘전체’에 붙어있는 부정관사 때문이다.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9b)는 앞선 ‘부분’이 연상자이고 뒤따르는 ‘전체’가 조응사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응의 방향은 언제나 ‘전체에서 부분’으로만 진행된다. 이러한 논증에 따라, Kleiber (2001:190-195)는, ‘부분’이 ‘전체’보다 선행하는 (9b)의 경우 선행하는 ‘les pneus’가 조응사이고 뒤따르는 ‘la voiture’는 연상자이며, 그 결과 외견상 ‘조응사-연상자’ 어순은 ‘연상 역행 조응(cataphore associative)’이라고 결론한다. 이에 따라 기본 요건을 갖춘 듯이 보이지만, 과잉 도출된 현상을 걸러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약(Contrainte d'orientation)’이 필요하다.

6) Kleiber (2001:191)에 의하면, 예문 (9b)에서 앞선 명사구의 한정사를 부정관사로 교체한 ‘Des pneus étaient lisses. La voiture a dérapé’에서는, 비한정 선행사는 지시물의 유형(type du référent = membre de la classe des N)을 의미한다. 그 결과 ‘des pneus’는 뒤에 오는 ‘la voiture’와는 무관한 비한정성을 지니므로 AA를 이루지 못한다.

(10) 방향성 제약

AA는 ‘전체(tout)’에서 ‘부분(partie)’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이 불가능성(non-transitivité)’도 이 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해석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생략되거나 행간에 숨어있는 경우, 연상자와 조응사 사이에 해석의 추론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11) a. * Nous arrivâmes dans *le village*. (L'église était ouverte.)

L'autel était recouvert de fleurs (Kleiber 2001:203)

b. * Nous nous approchâmes d'*une maison*. (La porte était fermée.)

La poignée était rouillée (Loc. cit.)

이 예문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마을과 제단’ 사이에 ‘교회’가, ‘집과 손잡이’사이에 ‘문’이 출현하지 않아 연상 과정을 정당화하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괄호 속 문장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중간 단계를 갖지 못한 새로운 지시물은, 추론 혹은 연상이 어려울 만큼, 연상자에게 과잉 ‘돌출성’을 강요한다. 돌출성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돌출성 원리(Principe de saillance)’에서 나온다.

(12) 돌출성 원리(Krahmer 1998:211)

담화에 처음 출현하는 요소는 다른 요소와 동등한 돌출성을 지니지만, 한정 명사구로 실현되면 돌출성이 높아지고, 연상자나 술어 등에 담긴 선행 정보에 의해 활성화되면 그 돌출성이 최대가 된다.

조응사가 지닌 정관사에 의해 돌출성이 높아지고 연상자 및 술어, 부사, 접속사, 문장 관계 등으로 의미가 보완되면, 연상 작용이 완전해진다. 그러나 (11)은 돌출성의 최대치를 초과함으로써 문법성의 한계를 벗어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비전이성은 다음과 같은 ‘상투성 제약(Contrainte de stéréotypie)’이라는 특성에 의거한다.

(13) 상투성 제약

AA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적절한 수준의 상투성을 가져야 한다.

정관사로 인해 도출된 연상 관계는 상투성을 전제로 하며, 전이에 대한 제약 역시 이 속성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AA가 전이될 수 없는 이유는 ‘부분-전체’라는 어휘 관계가 전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이를 용인하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관찰된다.

(14) a. Il y avait *une bicyclette* dans le jardin. **Les rayons** étaient faussés (Charolles 1999:316)

b. Nous nous entrâmes d'*une maison*. **La cheminée** fumait (Loc. cit.)

(14a)의 ‘une bicyclette-les rayons’과 (14b)의 ‘une maison-la cheminée’는 간접 매개체⁷⁾ ‘roues’와 ‘toit’가 없는 전형적 전이이지만 완전한 문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Charolles (1999:316)은 ‘한정 명사구의 지시물이 연상자 지시물에 대해 상투적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부분(partie de premier degré)»이면 수용될 수 있다’는 요건으로 설명한다. ‘바퀴살’은 ‘바퀴’의 그리고 ‘바퀴’는 ‘자전거’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퀴살’은 자전거와 ‘엄밀한 정형성’ 관계를 이룬다. ‘마을-교회-제단’이나 ‘집-문-손잡이’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을 이루지 못하므로 간접 매개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몬드리안 방식의 추론/연상’ 관계라고 설정했다. 반면에 (14)에서는 조응사가 연상자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으로 간접 매개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피카소 방식의 추론/연상’ 관계로 가정할 수 있다.⁸⁾ 그 결과 전이는 ‘몬드리안 방식의 추론/연상’에 의한 AA’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엄밀한 전형성에 의거한 ‘피카소 방식의 추론/연상’에 의한 AA’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Bouyer & Coulon (1994:332)의 제안⁹⁾을 응용하여, ‘연상 유형에 따른 전이 제약(Contrainte de transitivité selon les types d’AA)’을 제시한다.

(15) 연상 유형에 따른 전이 제약

일반적으로 전이는 불가능하다. 단 ‘엄밀한 정형성(typicalité rigou-

7) Berrendonner (1990:153)는 이 현상에 대해 ‘간접 매개에 의한(médiate) A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Kleiber (2001:215)는 “X가 W와 Z의 부분이고, W가 Z의 부분이면, W와 X의 AA도 Z와 X의 AA도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예문 (14)는 전이가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두 개의 AA가 하나의 담화 속에 묶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확정적 결정은 유보한다.

9) “C가 B의 전형적인 부분(partie typique)이고, B 또한 A의 전형적인 부분이며, A에서 C로 가는 해석 과정에 다른 길(autre chemin)이 없다면, C는 A의 전형적 부분을 이룬다.”

reuse)’에 의거함으로써 해석에 있어서 외길 수순을 밟는 ‘피카소 방식의 추론/연상에 의한 AA’는 예외이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논의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제약인 ‘분리 조건(Condition d’aliénation)’과 ‘존재 동일성 원리(Principe de congruence ontologique)’를 미리 제시한다.

- (16) a. **분리 조건(Kleiber 2001:242):** 조응사의 지시물은 연상자의 지시물로 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 b. **존재 동일성 원리(Kleiber 2001:247):** AA가 요구하는 분리성은 조응사의 지시물이 연상자의 지시물과 동일한 존재 유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관련 명사구들은 기본 요건을 갖추고 형식적인 제약 및 조응사와 연상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건 혹은 원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 (17) a. **기본 요건:** 새로운 지시물, 새로운 지시물의 정관사, 다른 지시물, 연상 작용
- b. **형식 제약:** 분의어 조건, 방향성 제약, 상투성 제약, 연상 유형에 따른 전이 제약
- c. **관계 조건/원리:** 분리 조건, 존재 동일성 원리, 돌출성 원리

3.3. AA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

AA에 접근하는 상반된 두 방식, 즉 ‘어휘 상투성 논증(thèse lexico-stéréotypique)’과 담화 문맥으로 해결하려는 ‘담화 문맥 연상 가설(thèse discursivo-cognitive)’은 각각 장단점을 갖는다.

Kleiber (1994ab, 2001)가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전자의 접근법은, 사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발화자가 ‘Nous sommes entrés dans un village’라고 말하면, 수신자는 ‘프랑스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쯤 있지. 뿐만 아니라, 길이나 집, 주민, 시장 등도 있지’와 같은 예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교회나 길, 집, 주민’ 등과 같은 새로운 지시물이 출현하더라도, 마을에 대한 기대 값에 합치하므로, 즉시 합당한 추론을 통해 관계를 연상한다. 이러한 기대 값이, ‘펜에는 깃털이 붙어 있고, 마을에는 교회가 존재하며, 자

동차는 바퀴를 갖는다'는 상투적인, 어휘부에 저장된 지식이다. 그 결과 다른 대명사류나 지시사, 소유사보다 연결고리가 약해도 관계의 인지 혹은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발화자나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투성이 필수 불가결하다.

(18) a. ? Nous entrâmes dans *un village*. Le grand magasin était fermé (Kleiber, 2001:111)

b. ? Jean est allé *se promener dans Central Park*. Le voleur lui a pris tout son argent (Loc.cit)

(18a)의 경우 인식적 측면에서 두 명사구가 약한 관계(lien faible)¹⁰⁾를 형성하므로, 'le grand magasin'은 'le grand magasin de ce village'라는 해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8b)에서도 'Jean이 Central Park에 산책갔다 만난 도둑'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Jean a été attaqué par un voleur lors de sa promenade dans Central Park'와 같은 문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계 유형' 및 '조응사 지시물의 유형', '수량적 측면(quantité)'이라는 세 가지 준거가 필요하다. 관계 유형에서 연상자의 지시물은 '포함 요소'이고 조응사의 지시물은 '피포함 요소'이며, 조응사 지시물은 연상자 지시물의 구성 성분이고¹¹⁾, 마지막으로 연상 관계가 이미 형성된 지식과 일치하더라도, 수량이 이에 반하면 정당한 해석을 받지 못한다.

(19) a.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es églises étaient situées sur une hauteur (Ibid. 117)

b. *Un bus* s'arrêta. Les passagers descendirent / * Le passager descendit (Loc.cit.)

(19a)는 프랑스 마을에 교회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상투성과 맞지 않아 수용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19b)에서는 '버스에 단 한 명의 승객만이 타고 있다'는 가정은 상투적이 아니므로, 실제로 단 한 명의 승객만이 타고 있는 경우라도, 복

10) Dubois & Lavigne-Tomps (1994:278)

11) Kleiber (2001:114)에 따르면, 프랑스 마을에 '교회'는 대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으나, 'le supermarché'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 'le grand magasin'은 더욱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 마지막으로 'la mosquée'는 마을의 상투성에 반하는 요소이므로 '*'가 붙을 만큼, 갈수록 수용성이나 문법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응사의 지시물에 대한 조건이 의미를 갖게 되고, 두 지시물을 묶는 관습적 지식이 필요하다.

수 표지만이 문법성을 어기지 않는다.¹²⁾ 그런데 이 논증은 연상은 되나 상투성을 담보하지 않는 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에 Charolles (1994ab, 1999)이 주도하는 ‘담화 문맥 연상 가설’은 전자의 논증이 지닌 결정적 약점을 해결한다. 어휘부에 다양한 유형의 AA를 모두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¹³⁾, 상투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비문법적 혹은 비수용적인 것으로 과잉으로 여과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논증은 담화 문맥에만 의거하여 현상에 접근한다.

- (20) a. *Sophie dormait.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Charolles 1994a:70)
 b. En 1930, les voitures roulaient moins vite (Loc.cit.)

(20a)의 ‘l’avion’과 ‘Sophie dormait’는 어휘부에 수록된 정보와 무관하고, (20b)의 ‘les voitures’가 1930년과 동일한 유형의 상투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휘상투적 논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명사구는, Kleiber (2001: 118-128)에 의하면, 앞의 예들에 나타난 것처럼, 한정적이 아닌 총칭적 혹은 개체적 실체를 지시한다.

- (21) a. *Sophie dormait. Jean se levait tranquillement* (Kleiber 2001:119)
 b.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Sophie dormait* (Ibid. 127)
 c. *Sophie dormait/tricotait/songeait.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Ibid. 126)
 d. *Sophie dormait. L’avion de la KLM/Le gros 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Ibid. 128)

이러한 유형에서는, (21a)에서처럼 고유 명사로 치환될 수 있고, (21b)와 같이 절의 순서와 무관하기도 하며, (21c)에서처럼 특정한 술어가 아닌 다양한 술어들이 가능하므로 ‘dormir’라는 특정한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21d)와 같이 보어나 형용사가 부가되어 특정성을 갖더라도 모두 용인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Charolles (1994a:79)은 상투성에 의거하는 논증에서 문제가 된 예문들도 담화를 잘 구성하면 문법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12) 단수와 복수의 상보성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단수와 복수가 모두 허용된다. 상식적으로 단수 혹은 복수의 살인자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i) Paul a été assassiné hier. Le meurtrier n’a pas été retrouvé
 ii) Paul a été assassiné hier. Les meurtriers n’ont pas été retrouvés

13) Bouyer & Coulon (1994:334)

- (22) a.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¹⁴⁾
- b. Nous nous étions inscrits à un circuit “Connaissance de la Bourgogne romane”. La région était littéralement couverte de petits édifices dont certains remontaient au X^e siècle. Nous partîmes de bon matin car le programme était chargé.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Charolles 1994a:79)

‘시나리오-구성요소(scénario-composant)’라는 관계를 활용하면, 상투성을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담화 문맥으로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상투적이라는 개념은 ‘조응사가 관여하는 하나 혹은 두 개의 문장으로 지나치게 압축한 엄정 문맥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22b)에서와 같이, 문맥이 보다 확장되고 잘 다듬어질 경우 얼마든지 완벽한 담화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응사의 정관사가 한정성에서 약간의 총칭성(à parfum générique) 혹은 개체성으로 변한다는 지적은 인정한다.¹⁵⁾

Kleiber 방식의 논증은 지나치게 좁게 현상을 설정하고 상투성을 벗어난 담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보이지만, 구조화나 형식화에 장점을 보인다. 반면에 Charolles 방식의 가설은 어휘나 문맥에 상투성 개념을 부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상들까지 문맥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관성을 가진 이론적 틀의 정립이 어려운 반면, 어휘상의 연결고리가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Kleiber (2001:142)도 어휘 상투성에 입각한 논증이나 담화 문맥에 의한 연상 가설은 경우에 따라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양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예는 위에서 제시한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 (23) a. Jean aime *la Corée*. **La capitale** se trouve au bord de la mer
- b. Je suis arrivé dans *un village*. **Le temple** est fermé

(23a)의 ‘la Corée’와 ‘la capitale’은 AA를 이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14) 이러한 유형의 담화에 대해서 Kleiber (2001)는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Charolles (1994a:70)은, 자신의 직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Kleiber가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한다.

15) 반면에 ‘village’와 ‘église romane’은 비어휘적 관계이므로 ‘village’와 ‘église’가 맺는 관계와 다르다고 Kleiber (1994a:109)는 반박한다.

갖춘 발화이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수도는 바닷가에 있다’는 연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들 모두가 이에 대한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처럼 전문적 지식에 위배하는 경우, 이는 수용성이나 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지식에 의거한 참이나 거짓과 관련된 명제의 문제가 된다. (23b)에서도 상투적으로 마을마다 절이 있는 아시아인들에게는 완벽하게 해석되지만, 유럽인에게는 이상한 문장으로 비친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공동체나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담화 혹은 상황 문맥을 적절한 수준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현상의 산출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확대하면 일종의 ‘도플러 효과(Effet Doppler)’¹⁶⁾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24) 도플러 효과

연상 효과는 발화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언어, 문화, 상황, 문맥, 지식 등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 및 문화 환경에 노출된 구성원이라도 교육 정도나 공유된 상황, 문맥, 세상에 대한 지식 등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출과 해석의 깊이 높아지고 그 역도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이 효과를 적용하면, (23)과 같이 기본 요건을 갖추고 형식 제약과 관계 조건을 어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오류를 범한 발화를 설명할 수 있다.

3.4. 조음 가능 구조와 불가능 구조

Kleiber (2001:263-356)는 담화의 구성상 AA가 가능한 구조와 불가능한 구조를 구분한다. 포함 관계에도 이질적인 자질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부분’과 ‘집단(collection)-성원(membre)’, ‘덩어리(massif)-일부(portion)’, ‘대상(objet)-재질(matière)’, ‘행위(activité)-질(qualité)’, ‘공간(lieu)-자리(place)’ 등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자질에 의거하여, 그는 먼저 ‘분의’와 ‘비분의’를 나누고, 후자를 ‘공간(locative)’¹⁷⁾ 및 ‘논항(actancielle)’, ‘기능(fonctionnelle)’에 따라 구분한다.

16) 물리학에서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측장치, 파동이 전파되는 매질 등 세 가지의 상대속도에 따라 원래의 파장, 진동수와는 다른 값으로 관측된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다가오는 물체와 멀어지는 물체는 같은 속도일지라도 관측자에게 다른 값으로 산출된다(<http://www.wikipedia.org>).

17) ‘분리성(séparabilité)’과 ‘기능성(fonctionnalit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Kleiber (2001:300-304)는 ‘어디에나 존재 가능한 요소’라는 의미에서 ‘공간 필수적(locative canonique)’과,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요소’라는 뜻으로 ‘공간 수의적(locative facultative)’으로 나눈다.

- (25) a. J'ai acheté *un stylo* hier, mais **la plume** est cassée
 b. Nous entr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sur une butte
 (Kleiber 2001:278)
 b'. Nous entrâmes dans *une cuisine*. **Le réfrigérateur** était ouvert
 (Loc. cit.)
 c. Paul s'est inscrit dans *un club de foot*. **Le président** a fait signer une licence pour deux ans (Loc. cit)
 d. Paul a été assassiné hier. **Le meurtrier** court toujours (Ibid. 267)

연상자와 조응사의 필수적인 포함 관계를 반영하는 (25a)에서 'la plume'는 'un stylo'와 분의 관계를 이룬다. (25b)와 (25b')에서는 'l'église'나 'le réfrigérateur'가 각각의 연상자로 주어진 'un village'나 'une cuisine' 내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공간적이나, 전자는 공간에 필수적인 요소를 후자는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요소로 구분된다. (25c)에서는 'un club de foot'과 'le président'이 기능적으로 결합하고, (25d)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나 술어가 연상자가 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의미역(rôle thématique)이 배당된 논항의 자격으로 현상에 관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Kleiber (2001:224-24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명사구들은 AA를 이루지 못하는 전형적 유형이다. (i) '신체 부위나 신체에 밀착되는 옷, 신발, 안경 모자 등'과 같은 소위 비분리 명사구(noms de parties inaliénables), (ii) '아름다움, 광채, 정신, 영혼 등'과 같은 추상적 고유성을 지니는 속성 명사구(noms de propriété)나 '가죽, 플라스틱, 면, 나무, 상자 등'과 같은 재질 및 형태 명사구(noms de matière/de forme), (iii) '탄생, 죽음, 도착, 웃음, 분실'과 같은 시간 및 사건 명사구(noms de temporalité/d'évènement), (iv)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 같은 친족 관계 명사구(noms de parenté)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AA를 이루지 못한다.

- (26) a. ? *Max* entre. **Les yeux** sont hors de leurs orbites (Ibid. 224)
 b. ? Paul est un fan de *Marylin Monroe*. **La beauté/l'éclat** l'éblouit
 (Ibid. 230)
 c. ? *Cette machine* marche bien. **L'invention** a nécessité beaucoup d'effort (Ibid. 236)
 d. ?? J'ai rencontré *une jeune fille très malheureuse*. **La mère** lui rend la vie impossible (Ibid. 351)

Kleiber (2001:240-246)에 의하면, 명사구는 재질성[±matière]이나 형태성[±forme], 의도성[±intentionnalité] 등과 같은 의미 자질들을 갖는데, 명사의 종류에 따라 배당되는 자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27) a. 유정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animé)]
- b. 일반적인 구상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animé)]
- c. 형태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 d. 재질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 e. 속성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 f. 시간/사건 명사: [-matière, -forme, +intentionnalité]

일반적인 사물 명사는 재질과 형태를 지니나 의도성(혹은 유정성)은 없으며, 유정 명사는 세 자질을 모두 갖고 있고, 형태 명사는 [+forme]를, 재질 명사는 [+matière]를, 속성명사는 [+intentionnalité]만을 갖는다. 이에 의거하여, (26a)의 비분리 명사구는, (16a)에 제시된 ‘분리 조건’을 어길 뿐 아니라, 잠재적 연상자인 ‘Max’의 [+intentionnalité]와 ‘les yeux’의 [-intentionnalité]가 충돌하여 (16b)의 ‘존재 동일성 원리’를 동시에 어긴다. (26b)의 속성 명사는 잠재적 연상자 ‘Monroe’와 [+intentionnalité] 자질만 일치하고 형태와 재질 자질에서 충돌하므로 배제된다. (26c)의 일반적 구상 명사인 ‘machine’와 ‘시간/사건 명사’인 ‘invention’은 서로 상반된 자질을 가지므로 존재 동일성 원리를 위반한다.¹⁸⁾ 그러나 (26d)의 친족 관계 명사에 관해서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형식 제약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도 가능하고, 존재 유형도 동일하며, 충분한 돌출 조건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각한 수용성을 야기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 Kleiber (2003:103-109)는 문제 제기만 한 채, “수수께끼(un puzzle référentiel en anaphore associative)”로 남긴다. 다만 ‘le père’나 ‘la mère’는 반드시 ‘le fils’나 ‘la fille’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처럼 “관계가 직접 맺어지는 경우에는 정관사 대신에 소유사가 부가된 명사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으로 결론을 대신한다.¹⁹⁾

18) 문법적으로 용인되는 다른 비분의 현상에 대해서는 존재 동일성 자질이 과제로 주어진다. 특히 기능 및 논항 관계에서 연상자와 조응사는 어떤 자질을 공유할까? 전자의 경우 의도성 자질이 충돌하고, 후자에서는 행위 혹은 의미역 자질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 역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19) 그러나 Kleiber (2003:102-103)는, ‘On m’a présenté une jeune fille à marier, mais la mère était impossible’과 같은 유형의 예문에서는 접속사 ‘mais’의 출현에 의해 ‘집단-구성원(collection-membre)’이라는 개념을 돌출시켜 직접적 관계가 간접적 관계로 변하고, 그 결과 ‘une jeune fille à marier’는 ‘la mère’와 동등한 자격으로 ‘집단(collection)’에 속한 성원(member)’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피해 간다. 그렇다면 ‘엄마’와 ‘딸’은 성원들 사이의 관계이

4. 새로운 분류를 위한 자질 가설

김서영(2014:54-59)은, Kleiber (2001)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분류 가능성을 타진한다. 연상자 A와 조응사 B가 존재할 때, ‘A와 B가 거의 같거나 포함($A \supset B$)’하므로, 이를 ‘완전 포함($A \supset B$)’과 근사치 ‘동일 위계($A \approx B$)’²⁰⁾로 세분한다. 포함을, ‘전체-속성’ 및 ‘분의’, ‘공간’이 속하는 물리적 포함과, 단계’ 및 ‘기능’, ‘논항’을 담는 개념적 포함으로 하위분류한다. 공통의 상위어를 갖는 하위어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계’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그 결과 기존의 Kleiber (2001) 분류에 ‘전체-속성’과 ‘단계’, ‘동일 계층’이라는 하위항목이 추가되었다. 이 시도에 의하면, ‘속성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나 그 밖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보다 문법적인 예가 많고, ‘쇼핑’과 같이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행위’는 ‘논항 관계’에서 분리되며, ‘동일 계층 관계’는 새롭게 제안된 항목이다. Kleiber (2001)가 설정한 네 가지 전형적 유형이 (25)이고, 김서영 (2014)에 의해 추가된 항목은 ‘속성’ 및 ‘단계’, ‘동일 위계’ 관계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근거로 한다.

- (28) a. Il ne veut plus garder *sa valise*. Le cuir est fané²¹⁾ (Charolles 1990:130)
 b. Paul ne veut plus *faire du shopping* avec sa femme. Il n’aime pas l’essayage
 c. Le chirurgien est devant le bâtiment. L’opéré est sorti pour lui dire bonjour

(28a)의 ‘le cuir’는 연상자 ‘sa valise’와 비분리되고 존재 동질성도 맞지 않지만 문법적으로 용인되는 ‘전체-속성’ 관계이고, (28b)의 ‘l’essayage’는 ‘faire du shopping’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정 - 예들 들어, ‘백화점 가기’, ‘주차하기’, ‘둘러보기’, ‘옷입어 보기’, ‘지불하기’ 등과 같은 행위 - 중에 하나로 논항의 자격에서 분리된 ‘단계’ 관계이다. 반면에 (28c)에서는 피카소 방식으로 추론된 상위어 ‘l’opération’을 전제로, 하위 범주어인 ‘l’opérée’와 ‘le chirurgien’이 동등한

고 가족이라는 집단은 명시적으로 문맥에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제안될 ‘동일 위계’ 관계에 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 20) 김서영(2014)은 이 관계를 등호 기호(=)로 표시하였으나, ‘값이 완전히 같다’가 아닌 ‘동일한 자격’을 의미하므로 ‘근사값’을 뜻하는 기호 ‘ \approx ’을 사용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용어는 수정하여 제시한다.
 21) 이러한 유형의 명사구가 재질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속성과 관련될 때에는 수용성이나 문법성이 향상된다.

자격으로 관계를 맺고, 연상자 ‘operation’은 어휘망 속에 숨어 있다. 이에 의거한 김서영(2014:57-58)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 김서영(2014)의 분류

A (연상자)와 B (조응사) 사이의 관계		Kleiber (2001) 분류	
완전 포함 ($A \supset B$)	물리적 포함	속성(<i>propre à tout</i>)	-
		분의(<i>méronymique</i>)	<i>méronymique</i>
		공간 필수(<i>locative canonique</i>)	<i>locative</i>
		공간 수의(<i>locative facultative</i>)	
	개념적 포함	기능(<i>foctionnelle</i>)	<i>foctionnelle</i>
		단계(<i>par étapes</i>)	<i>actancielle</i>
		논항(<i>actancielle</i>)	
동일 위계 ($A \approx B$)	하위 범주들 사이의 관계	동일 위계(<i>en même rang</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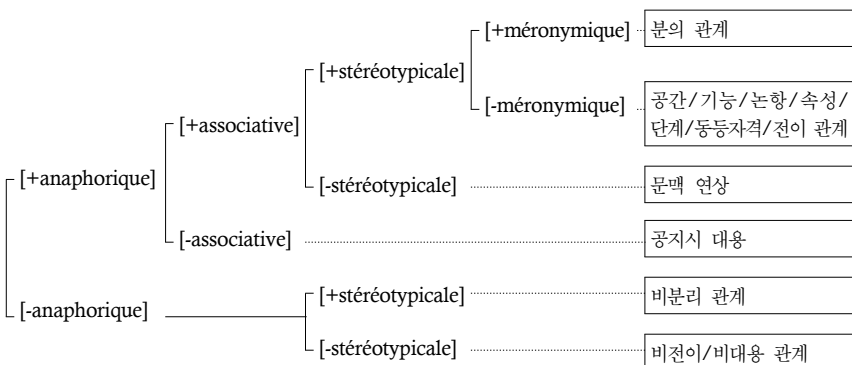
Kleiber와 김서영의 제안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상 조응을 형식 및 의미 자질(*traits formels et sémantiques*)을 이용하여 다시 분류한다. 형식 자질로 (i) 문맥 상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사구가 출현하면 첫 번째 요건이 성립하므로 ‘대응 자질’인 [\pm anaphorique]와 (ii) 정관사를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매개로 하는 ‘연상 자질’인 [\pm associatif]를, 의미 자질로 (iii) 두 명사구가 의미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투성 자질’인 [\pm stéréotypical]과 (iv) 상투성 자질에 의거하여 필수적 ‘전체-부분’과 수의적 ‘전체-부분’을 구별하게 하는 ‘분의 자질’인 [\pm méronymique]를 부여하고, 이를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조합한다. 먼저 대응 자질을 적용하여 대응이 가능한 담화와 그렇지 못한 현상을 구분하고,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연상 자질의 실현 여부를 적용하여 연상 조응의 형식 요건을 점검하며, 이 자질이 관여하면 상투성 자질의 유무에 따라 하위 분류되고, 상투성에 의거한 관계에는 분의 자질을 적용한다. 이러한 순서로 조합되는 이유는 형식적 요건이 의미적 관계보다 먼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²²⁾

22) 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16가지이나, AA 중에서 [-stéréotypical]이면서 [+méronymique]인 유형은 없고, [-associatif]이면, 다음 단계의 자질들은 의미가 없으며, [-anaphorique]이면 대응을 이루지 못하므로 [\pm associatif] 자질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외형상 AA가 요구하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으나, 대응이나 연상 자질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명사구들 사이에 상투성이 존재하는 [-anaphorique, -associative, +stereotypical]과 단 하나의 자질도 없는 [-anaphorique, -associative, -stereotypical]로 나뉠 수 있다. 이 마지막 두 현상을 포함하는 구분은, AA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수용성 혹은 문법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예들의 행태를 바르게 예측하게 한다.

- (29) a. [+anaphorique, +associatif, +stéréotypique, +méronymique]: 분의
- b. [+anaphorique, +associatif, +stéréotypique, -méronymique]: 공간, 기능, 논항, 전체-속성, 단계, 동등 자격, 피카소 방식의 전이
- c. [+anaphorique, +associatif, -stéréotypique]: 문맥 연상
- d. [+anaphorique, -associatif]: 공지시 대응
- e. [-anaphorique, +stéréotypique]: 비분리,
- f. [-anaphorique, -stéréotypique]: 몬드리안 방식의 전이, 비대응

(29a)는 네 가지 자질을 모두 갖는 전형적 분의 관계의 AA를 포함하며, 가장 다양한 유형들을 담고 있는 (29b)는 분의 관계가 아닌 비전형적 AA로 ‘공간’을 비롯하여 ‘기능’, ‘논항’, ‘전체-속성’, ‘단계’, ‘동일 위계’, ‘피카소 방식의 추론/연상’에 의한 전이 형태²³⁾가 분류된다. 다른 한편으로 상투성 자질을 갖지 않는 (29c)는 Charolles이 기술하는 문맥 상으로 접근해야 하는 AA이고, 연상 자질을 갖지 않지만 대응 관계를 보이는 (29d)는 공지시 대응을 의미한다. 앞의 네 가지 경우와 달리, (29e)와 (29f)는 대응 혹은 연상 조응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전자에는 어휘들 사이에 상투적 관계는 존재하면서도 AA를 이루지 못하는 ‘유정 명사’ 및 ‘속성/재질/형태 명사’, ‘시간/사건 명사’, ‘친족 관계 명사’들이 이에 해당하며, 후자에는 몬드리안 방식의 추론/연상으로 전이됨으로써 수용되지 않는 담화나, 대응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명사구들 사이의 관계가 속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새로운 분류



23) 보다 세부적인 자질을 이용하면 동일한 항목에 속한 다양한 유형의 관계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열어 둔다. 당연히 각 관계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문들이 존재하므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분류에 의해 AA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형식 자질을 이용하여 AA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본 논문은 ‘어휘 상투성 논증’과 ‘담화 문맥 연상 가설’의 상반된 관점에 변증법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네 가지 자질을 조합함으로써, AA를 비롯한 공지시 대응, 비분리 및 비전이 관계, 대응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까지도 포함하여 분류하고 그 수용성이나 문법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하며, 언어는 추론을 통한 연상 작용을 반영하여 발화로 실현된다. 따라서 발화는 어휘소들이 갖는 의미의 산술적 합집합이 아니라 추론/연상이라는 인간의 정신이 발현된 고도의 창조물이다. 그 대표적 유형이 AA이고, 이 현상을, 모국어 화자들이 방대한 어휘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추론/연상하여 산출하거나 해석한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공동체에 속한 어휘들의 상투성 관계나 담화 및 상황 문맥, 문화적 틀, 관련 사회의 여러 현상과 맞물린 모든 사전 지식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새로움을 더하려고 노력했다. 대응과 조응의 구분을 시작으로, ‘몬드리안 방식’과 ‘피카소 방식’으로 구분되는 추론이라는 정신 작용을 연상이라는 기제와 연관시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연상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연상 조응에 대한 기본 요건과 형식 제약, 관계 조건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상 조응에서의 ‘도플러 효과’라는 새로운 개념 등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AA와 관련된 두 개의 형식 자질(대응 자질 [\pm anaphorique] 연상 자질 [\pm associatif])과 두 개의 의미 자질(상투성 자질 [\pm stéréotypique] 분의 자질 [\pm méronymique])을 조합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언어는 거대한 빙산과 같다. 언어 연구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작은 부분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한편 물속에 잠긴 거대한 전체는 통사·의미·화용·인지·심리학을 통섭하여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지난한 작업이다. Kleiber (2001:367) 역시 ‘조응이라는 «황소의 뿔»을 잡고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지대한 관심’으로 비유한다. 언어 연구의 보편성을 위해, 국어와 영어의 현상을 다루는 차후 과제를 통해 AA라는 거대한 빙산의 실체를 추정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서영 (2014), '프랑스어의 연상 대응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본문.
- 신기철 외 (1980),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Berrendonner A. (1990), 《Attracteurs》, *Cahier de linguistique française*, 7, 149-159.
- Bouyer E. & Coulon D. (1994), 《Détection des entités et des procès mis en relation dans les anaphores associatives》,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321-343.
- Charolles M. (1990), 《L'anaphore associative. Problèmes de délimitation》, *Verbum XIII* 3, 119-148.
- Charolles M. (1994a), 《Anaphore associative, stéréotype et discours》,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67-92.
- Charolles M. (1994b), 《Comment et quand sont interprétés les NPs définis notamment anaphoriques?》,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175-207.
- Charolles M. (1999), 《Associative anaphora and its interpretation》, *Journal of pragmatics*, vol. 31, n°3, 311-326.
- Choi-Jonin I. (1994), 《L'anaphore associative et le trait sémantique animé》,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251-270.
- Clark H. H. (1977), 《Bridging》, in P. N. Johnson & P. G. Wasow (eds), *Thinking: readings in cognitive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1-420.
- Dubois D. & Lavigne-Tomps F. (1994), 《Anaphore associative et traitements cognitifs》,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273-298.
- Kleiber G. (1994a), 《Le contexte peut-il remettre d'aplomb une anaphore associative?》,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93-116.

- Kleiber G. (1994b), 《Anaphore associative, antécédent et définitude》,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153-173.
- Kleiber G. (2001), *L'anaphore associative*, Paris: PUF.
- Kleiber G. (2003). 《Un «puzzle» référentiel en anaphore associative》 *Fonseca, FI & Brito, AM (éds), Lingua portuguesa: estruturas, usos e contrastes*, Porto, Centro Linguistica da Universidade do Porto, 97-110.
- Kleiber G., Schnedecker C. & Ujma L. (1994), 《L'anaphore associative, d'une conception l'autre》,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5-64.
- Krahmer E. (1998), *Presupposition and anaphora*, Standard: CSLI publication.
- Miévillie D. (1999), 《Associative anaphora: and attempt at formalisation》, *Journal of pragmatics*, vol. 31, n°3, 327-337.
- Saussure F. (1983),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http://www.wikipedia.org>

김경석

361-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52 (개신동)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kskim@cbnu.ac.kr

김서영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박사과정

전자우편: seoyoung.kim@hotmail.com

접수일자 : 2014. 10. 20

수정본 접수 : 2014. 11. 12

게재결정 : 2014. 11. 17